

올해부터는 <완성된 설교문>을 제공하지 않고,
<선생님이 주신 기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자가 최대한 연구해서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설교문>은 ‘완성된 설교문’ 이 아니니, 그대로 전하지 말고,
<기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자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자기 능력껏, 재량껏 만들어서 전해야 됩니다.

설교자 본인이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고,
<설 곳>에서 쉬고, <강조할 곳>을 강조하고, <추가할 부분>을 추가하고,
<간증할 것>을 간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전하기 바랍니다.

<선생님 코치>

선생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늘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말씀>을 잘 전하냐고
두려워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묻는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해주니,
‘자기 모습’ 을 생각하며 깊이 읽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치면서 행해라.

▶ <설교>는 ‘왕의 조서’ 를 백성들에게 잘 외쳐서 증거하는 것과 같다.

▶ <설교>는 ‘설명’ 이 아니고,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것’ 이다.

▶ <심정>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외쳐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내용대로 잘 전달되는 것이다.

▶ 진지하고 심각하게 전하되,
그렇다고 너무 ‘인상’ 을 찌푸리지는 말아야 된다.

▶ <유능한 연기자>가 ‘좋은 시나리오’ 를 보고 내용대로 연기하듯이,
<유능한 가수나 소리꾼>이 가사에 맞춰 음을 높이고 낮추며 노래하듯 전해야 된다.

▶ 설교를 외칠 때, <속도위반>하지 말아라.
빠르게도 말고, 느리게도 말고 ‘속도’ 를 지켜라.

- ▶ <제스처>는 너무 손을 하늘 높이 들지 말고,
‘강조할 말씀’이 있을 때 ‘적당한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해줘야 된다.
- ▶ <표정>도 ‘설교’다.
<표정>으로 ‘말씀’과 ‘심정’을 전해주니,
듣는 자가 거부하지 않게 쳐다보면서 신경 써야 된다.
- ▶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보고,
<말씀을 받는 자>같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제2의 말씀의 주인>이 되어 전해야 된다.
- ▶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본인’을 쓰고 직접 전달하듯이 전해줘야 된다.
- ▶ <주어진 말씀>만 전하지 말고, 꼭 교역자들이 ‘원고’를 써서 외쳐야 된다.
- ▶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전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가고, ‘권세 있고, 세력 있는 말씀’이 된다.

<2021년 11월 3일 수요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시대 성경]

나 여호와와 성령과 주와 함께하리니,
나의 말을 지켜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되고 형통하리니,
항상 이를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기뻐 감사하며 행하여라.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 이 끝도 없고, ‘여러 가지’ 로 쓰입니다.

<생활의 칼>이 ‘여러 가지 용도’ 로 쓰이듯이,
<말씀>도 ‘그때마다 쓰이는 방법’ 이 다양합니다.

- 금주에도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유익’ 이 됩니다.
- 〈말씀〉만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쳐 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해당되는 것’ 을 믿고, 얻게 됩니다.
- 금주에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리니,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안 될 것’ 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 세상 78억의 사람들〉을 필요한 대로, 합당한 대로
그때마다 데려다 쓰시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능력’ 으로 행하시고,
〈성령님〉은 ‘감동’ 시키시고,
〈성자 주〉는 ‘말씀’ 을 주십니다.

그러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 〈절대자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 에서만 절대로 행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절대로 행하신다면,
〈지옥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나 여호와와는 〈나의 뜻 안〉에서만 절대로 행한다.

아무 데서나 절대로 행하는 존재자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 〈절대자 하나님〉은

‘아무 곳’ 에나 절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둔 합당한 뜻 안’에서만 절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주시되,

축복 전에 “어떻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금주에도

“〈누구의 말〉을 들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을 절대 믿고 지켜 행해야,

본문 말씀대로 축복해 준다.” 하셨습니다.

-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은

▶ 〈그 말씀〉과 일체 되고,

그로 인해 〈삼위와 주〉와 일체 되라는 말씀입니다.

▶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믿고 따르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렇게 믿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다른 어떤 주관>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말씀>만 절대 믿고 중심하고 가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어 어디를 가든지
 잘되고 형통한다는 말씀입니다.

- <절대자 하나님 앞>에,
 ‘절대 말씀의 조건’을 세우며 믿고 행해야 됩니다.
-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어느 시대든지 ‘여호수아 같은 처지와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지켜 담대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도 흔들리지도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잘되고 형통한다.” 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들이 아니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자’가 없었습니다.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시니
잘되고 형통한다〉는 말씀은

먼저는 ‘이 시대 주’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는
〈하나님의 천 년 이상세계 역사〉입니다.

- 우리는 이미 그 역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믿고,
절대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행하게 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전의 선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이미 <예수님 때>부터

“내가 다시 와서 천 년 동안 혼인 잔치하며 행하리라.” 하시며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행하십니다.

- <섭리역사>는 ‘당세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에 이어서 행하시는
<마지막 천 년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주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들의 역사>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뜻을 두고 계획적으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뜻을 이루면,

우리도 ‘이상세계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시중을 들며,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어, 땅에서 ‘천 년 역사’가 끝나도

‘하늘 황금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에 이은 성약시대입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어 43년이 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천 년 성약역사, 섭리역사>는
‘1978년’ 부터 시작됐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약 2000년>이 끝나기 전부터
그 뒤를 이어갈 <천 년 성약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을 한 날’ 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약혼식을 하고 살아온 날’ 까지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 <시대>를 확실하게 알아야, ‘좌우’ 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 <시대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시간을 볼 줄 모르는 사람’ 과 같습니다.

<시계를 볼 줄 모르는 단계>는 ‘아주 어린 아이의 단계’ 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저차원적입니까.

-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사명자’ 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천륜의 법칙’ 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약에 해당되는 자’ 를 보내셨고,
<신약시대>에는 ‘신약에 해당되는 자’ 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성약시대>에는 <성약시대에 해당되는 자>를 보내십니다.

-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 보낸 자>를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여호와>를 믿고,
<내가 보낸 자>를 믿어도, ‘믿는 차이’가 크니라.

<절대로 믿고, 가치를 알고 행하며 사는 자>와
<보통으로 믿고, 보통으로 행하는 자>의 차이가 너무도 크니라.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행하는 자>는
<금은보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휴거되어 황금천국에서 금은보화로 집을 짓고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휴거가 됐어도 보통 집을 짓고 사느니라.
<세상의 인생살이>를 보아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만물을 중심한 모든 물질세계의 삶’을
<귀하게 보고, 목숨을 다해 사는 자들>은 ‘높은 차원’에서 살고,
<보통으로 생각하고 대하고 사는 자들>은 보통으로 산다.

이와 같이 똑같은 <나 여호와>의 귀한 말씀>을 듣고도
보통으로 믿고, 보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삼위 앞에 ‘보통 사람’이 되고, ‘보통으로 휴거’되어
‘보통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깨닫고 살면,

그만큼 ‘높은 차원’에서 살게 되고,
삼위가 그만큼 축복해 주어서 ‘귀한 것’을 얻고 살게 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지구상 전체가 그 행한 대로 받고 살고 있는 <실제>이니라.”

-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한지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지 않고서 천국에 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 <회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깨끗한 새집>을 짓고 사는 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영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는
‘자기 자신’도 ‘삼위도 주’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매일 회개하는 일’을 안 합니다.

매일 먹고, 매일 이를 닦고, 매일 몸을 씻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자기 몸을 병들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한지 깨달아야 매일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병이 들었는지 연구도 하지 않고, 자꾸 치료만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하는 것에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도 그러합니다.

- 또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자>가
그렇게도 시간이 깊도록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 선생님이 <기도동산 기도표적 소나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기도하는 시간>에나 너와 만나지,
그 외에는 ‘너를 만날 시간’ 이 없다.” 하셨습니다.

- 그리고 이어서 깊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와의 만남>은

<지구 세상 78억 명이 너를 만나러 오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크다.

그런데 내가 만나러 가도,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 를 안 한다.

〈말〉을 안 하면,

〈전지전능한 존재자〉를 만났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는 ‘대화’ 다.

〈기도 시간〉은 ‘삼위 앞에 진지하게 할 말을 하는 시간’ 이다.”

-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영원한 운명’ 이 좌우됩니다.
- 가나안 복지를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로 가자.”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은

‘가나안 복지’ 에 들어갔고,

〈불만 불평하고 믿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육신의 운명’ 도 ‘영의 운명’ 도 영원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연성전 개발〉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돌로 쌓자.”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구상을 받아,

〈천 년 역사 하나님의 궁〉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 〈천 년 이상세계의 운명〉이 좌우된 것입니다.

- 〈돌〉은
‘하나님과 성령님’ 을 상징하고, ‘반석인 그리스도’ 를 상징합니다.

〈월명동 자연성전〉을 ‘돌’로 쌓았듯이,
〈자기〉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통해 하나님의 궁으로 만들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휴거의 영’이 되기까지 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지상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 〈육적인 이성의 사랑〉은
‘하나님과 일체 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영의 사랑, 정신적 사랑〉을 해야만,
‘일생 동안 가는 사랑’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일체 되는 사랑’이 됩니다.

- 매일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성자 주 사랑〉,
그리고 〈형제들 사랑〉입니다.

그래야 〈이상세계〉,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세계〉가 됩니다.

- 선생님은 월요일에
〈기도동산에서 하나님이 다니시는 계단 옆〉에 있는
〈소나무들〉을 두고 ‘구상’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1차로 손을 대기는 했는데,

2차로 손을 대야 완전하니 구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인데,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키가 큰 나무들〉은 3분의 1이라도
‘자를 것’을 잘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서 과감하게 잘랐는데,

자르고 나서 〈기도표적 소나무〉에 와서 보니,

자르기 전보다 훨씬 멋있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가리고 있던 〈인대산〉이 훤히 보였습니다.

- 이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전설의 산〉을 가리면 안 된다.

〈전설의 산〉을 가리는 것은

‘전설의 주인인 나 여호와’를 가리는 것이다.

〈소나무〉가 성장하기 전에는 ‘앞’을 가리지 않지만,

성장하다 보면, 결국 ‘시야’를 가리고, ‘산’을 가리게 된다.

이와 같이 〈섭리인들〉도 성장하고 크다 보면,

〈뽀죽뽀죽 큰 가지들〉이 ‘전설의 산’을 가리듯,

〈자기 주관이나 모순으로 큰 것들〉이

‘나 여호와와 성령’을 가리고, ‘시대 보낸 자’를 가리게 된다.

그러므로 ‘가지치기’를 해서 자르는 것이다.

〈소나무들〉을 가지치기하니 ‘작품’도 되고,
‘산’도 잘 보이고, ‘하나님의 전’도 잘 보이지 않느냐.

〈섭리인들〉도 그러하니라.” 하셨습니다.

-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잘라라, 잘라라 하셨구나.’
깨닫고 감사 감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원래 〈작품이 아닌 보통 소나무〉인데, 잘라서 ‘작품’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자꾸 자르고 싶지 않느냐.” 하시기에,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소나무〉를 계속 잘라서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 성령님은 선생님을 더욱 감동시키며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사람도

〈자기를 만드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렇게도 큰 것을 깨달아라.

깨달으면, 〈자기〉를 ‘계속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기를 만드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자〉는

‘자기’를 만들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기>를 이상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나 성령과 주’와 동행할 수 없느니라.

‘삼위’가 그를 알아주지 않느니라.

<보통 소나무>라도 잘라서 ‘작품’을 만들어야 알아주듯이,

너희도 각자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삼위’도 알아주고, ‘모든 사람들’도 알아주느니라.” 하셨습니다.

- <자기를 만드는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섭리사 사람들>을 보면,

형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만들어 주는 것은 좋아하면서
정작 ‘자기를 만들 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 <사도바울>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타인을 구원시켜 주고,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걱정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지도자들은 특히 <자기 만들기>를 잘해야 됩니다.

<따르는 형제>만 지적하고 가르치고 혼내면서,

자기에게 ‘모순’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성령께서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렇게도 지적을 합니다.

이런 <못된 성격과 사고와 생각들>을
나무 가지치기하듯, 삐죽삐죽 올라오는 가지들을 자르듯
다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라는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상대>를 통해서 ‘자기모순’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 <교역자>는 면담하면서 형제들을 지적하거나 혼내지 말고,
‘말씀’으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대해 줘야 됩니다.

<잘 해 주는 자에게>만 잘 해 주고,
<못 해 주는 자에게>는 못 해 주면,
<하나님도 주>도 ‘그’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 <자기를 만드는 자>가
 - ▶ ‘속 부자’입니다.
 - ▶ ‘실속 있는 자’입니다.
 - ▶ ‘빛이 나는 자’입니다.
 - ▶ ‘많은 재산을 가진 자’입니다.
 - ▶ ‘남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입니다.
 - ▶ ‘잘되고 형통하는 자’입니다.

- ▶ ‘천국 문을 마구 열고 다니는 자’ 입니다.
- ▶ ‘황금천국 문을 지나 자기 거처지에 들어가는 자’ 입니다.

- <자기를 만들지 않은 자>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항상 <자기 인격과 성격과 마음과 행실을 만들지 않은 자>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들은 잘되고 형통할 수 없습니다.

- 자기를 <육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부지런히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모순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기모순>을 찾아서 잘라내고, 끊어버리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 <옆 사람>은 모르니, ‘자기’를 대신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씁니다.

<시대에 해당되는 현대식 장비>를 만들어 놓아서
‘생활’이 편하게 됐듯이,

〈자기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 장비’로 만들어 놓아야,
‘모든 일’을 쉽고 편하게 감당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명령하셨으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돕고 함께하시면,
〈자기〉가 책임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도 결심하고 그와 같이 행하고 있으니,
〈모든 지체들〉도 그러하기를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늘 삼위가 함께해 주시며,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며 기도하고,
〈힘든 형제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 줘야 됩니다.

〈형제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도 ‘그’도 잘되게 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 항상 깊이 생각해보면,
〈자기 잘못〉으로 온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때문에 잘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바뀌어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다 내가 잘못했다.” 라는 답을 받으면,
그 응답은 맞는 응답입니다.

- 〈자기 죄〉도 회개하고,
〈형제들 죄〉도 회개해 줘야 됩니다.

〈구원시키는 정신과 사고〉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 〈하늘 신부들〉이라면, 지구 세상 누구에게도
‘욕’ 하거나, ‘불만 불평’ 하거나, ‘나쁜 표현’ 을 써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위하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나님도 성령도 말씀하셨습니다.

-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형제 탓〉하지 말고,
〈자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차고 넘치며,

모두 〈금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의 주인공’ 이 되기를 축원합니다.